

내가 생각하는 問題點

吳 雄 錫

(本協會 出版担当理事)

建築은 最高의 學門이고, 藝術이요, 技術이다. 建築士는 어느 專門業 보다는 보람되고, 偉大한 일을 하고 있다고 自負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업적은 永遠히 남는다. 그러나 榮光의 길은 험하고, 멀기 마련이다. 우리들은 굳은 信念을 가지고 꾸준히 修業하며 社會가 주는 모든 試練을 이겨나가야 한다.

우리들은 이순간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또 무엇을 하여야 할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가까운 일, 조그마한 일부터 冷情한 立場에서 생각해 보아야겠다.

우리들 一部屬 개선 참다운 建築士의 本分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協會는 항상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그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大勢에 못이겨 그대로 밀려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大勢란 무엇이며, 그것을 이겨낼 길이 정말 없는 것일까? 또 建築士의 本分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좀더 自己을 도리켜보고 더욱 알찬 來日을 위하여 지금 할 수 있는 조그마한 한가지 일씩이라도 實踐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協會에서 우리가 不調理를 없애고 不正하지 않는다는 것은 當然한 일에 不過하며 그것이 매견스럽게 앞자리를 恒常 차지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協會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定해진 組織과 予算限度 以上の 일을 주고 그 成果를 期待할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지금 우리 協會의 組織은 協會機構의 生理를 維持해나가는 데에도 힘겨운 것 같다. 最少限度의 管理業務와 事務的인 問題를 處理하는데 與念이 없다. 겨우 소바다 만한 雜誌 한권 만들어내는 일도 命脈을 維持하기 어려운 지경이며 그

雜誌조차도 國內 他協會誌와 比較해 볼때 規格이 작고 發行 部數도 要請關係部處에조차 配布치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印刷費는 3級印刷所施設을 利用할 수 있는 程度의 予算밖엔 안되며 雪上加霜으로 今年들어 紙價가 올라 紙質조차 維持하기 어려움과 그것조차 品費로 現金을 주고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形便이다.

하루 아침에 만족스러운 改善을 할 수는 없다고 하나 언젠가는 자랑스러운 雜誌를 만들어야겠고 그러기 위해서 한가지씩이라도 改善을 해나가야겠다. 勿論 內容이 더욱 忠實해야 한다. 그러나 一般的인 雜誌規格 程度의 體謀도 갖추어야겠으며 發行部數도 會員이 는만큼 또 우리들의 活動範圍가 넓어진 만큼은 增刊해야겠다.

이것은 우리가 會員의 各自 自身을 待接하는 길이며, 또한 建築士의 對外的인 名譽와 體面을 지키고 向上시키기 爲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最少限의 일이 아닌가싶다. 그러기 위하여는 먼저 일할 수 있는 組織과 予算이 確保되어야겠다.

또한 75年度에는 內容이 增量되고 色度印刷을 할 수 있는 計劃이 成就되어야겠다.

또한 우리 協會가 지금 해야 할 重要한 일들이 몇가지 남아있다. 그것은 建築士法改正, 設計監理報酬料率 引上, 監理規定制定, 稅率引下現實化 등이 巨大한 일들이다. 이러한 일을 누가 할 것인가. 會長이나 任員들이 法條文을 만들고 料率의 算出基礎를 만들어내는 作業을 하기에는 너무도 일이 많고 持續性을 要求하는 일이니만큼 現實上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勿論 꼭 하고야 말겠다는 決意는 돼 있다. 그러나 實務를 다루어줄 專膽職員이 꼭 必要하다. 一般事務를 보고 對外的인 섭의 活動을 겸하지 않는 專門職이 꼭 있어야겠다.

또한 이러한 問題를 主管해 줄 當局이 너무도 바쁘고 人員이 不足한것 같이 보인다. 當局이 建設部라고 하는 큰 看板을 걸고 있으나 事實上 實務를 다루고 있는 사람은 建築課 不過 數名の 職員中 1~2名에게 集約된다. 그분들은 當局의 立場에서 處理해야 할 一般業務를 보아 나가며, 또 建設部 自體의 指針에

다른 優先問題를 處理해나가기 위하여 每日같이 殘業을 하고 있는 實情인것 같다. 그 틈바구니 속에 우리들의 課題를 드러밀어 놓고 있으니 일이 쉽사리 될 筈이 없다.

結局은 우리 손으로 当局이 해야할 일까지 密接한 關係를 維持해가며 處理해 나가지 않으면 일이 안되는 것이다. 結局은 1200名의 뜻이 協會로 돌려지고 協會는 그것을 当局에 要請한다. 누구나 그 뜻에는 贊同하고 協力 해줄것을

約束하나 如前히 일은 되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엇인가 일을 處理해 나갈 수 있는 方法이 取해져야 하겠다. 내가 協會의 任員이 되기前에는 協會 予算이 너무 많고 그것을 무엇에 다쓰는가 그것이 不正의 要素며, 그 予算은 半減할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그러한 印象은 前任者 몇사람의 過誤가 던진 좋지않은 先入觀念 때문에 이었던것 같다.

막상 任員이 되고 協會 살림을 내다보니 協會 予算이란 現狀維持를 할 수 있을 程度의 힘겨운 實狀이며 막상 일해야 할 事業費 予算이나 活動費 가릴 판공費는 名目에 不適當 程度인 것 같다. 쉽게 比較해서 1個 事務室에서도 좀 크다고 하는 筈이면 그것의 몇배를 쓰고 있는 形便이 아닌가 싶다. 그것 가지고 거국적인 大協會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일을 消化할 수 있는 組織이나 予算하고는 너무도 큰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또한 우리會員 한사람 한사람은 과연 부끄럽지 않은 建築士의 本分을 다하고 있는지 도리켜 생각해보자. 建築士의 役割은 創意와 技術을 다하여 완벽한 設計를 하며 그집의 값을 더욱 높이는데 그뜻이 있으나 그것은 잘못알고 設計費를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것같이 생각된다. 그리고 建築許可는 建築士의 設計에 따른 附隨業務에 不適當 것이며 결코 本分이 아니다.

世上에는 建築士를 建築許可를 代書하는 사람으로 認識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 建築士 스스로도 建築許可 取得을 本分으로 일삼는 사람이 相當數 있는

것 같다. 차라리 그런 분들을 위하여는 建築許可士 라는 職種이 새로 생겼으면 좋겠다.

勿論 建築主 大多数가 沒理解하고, 自己손으로 마음대로 지어보겠다고 하는 지나친 主張과, 自己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때문에, 設計의 價值가 무엇이며, 왜 비싼 돈을 주고 建築士에게 맡겨야 하느냐하는 問題를 納得하지 못하고, 建築許可가 곧 設計의 全部인양 알고 建築許可만을 要請해 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結局 社會가 우리에게 주는 業務의 性格이나 性格에 따른 일의 配分量이 우리의 性格도 左右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러나 우리는 建築許可士가 아니며 設計를 本分으로 하는 建築士이니 만큼 許可業務를 取扱하는 경우에라도 우리의 긍지와 本分을 망각한 言動을 해서는 안 되겠으며, 헐값의 許可圖面作成費를 받고 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設計가 아니고 許可圖面 作成費라는 것을 分明히 認識케 하고 設計와 区分하도록 하여야 하며 設計를 할려면 적어도 實工事費를 規準으로 한 正式料率만큼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充分히 說得시켜, 우리의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선 篤친일부터 徐徐히 認識시켜 나가면 언젠가는 우리도 몇몇히 社會에서 待接받고 일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믿어마지 않는다.